

이재복 스님 추모사업 바빠진다

기념사업회, 법문·문학전집 발간·기념비 건립키로

태고종 근현대사에서 산증인으로서 불교를 이끈 공헌을 한 용봉당 이재복 대종사의 추모사업이 활발히 전개된다.

용봉 스님은 태고종 중앙총회와 동방불교대학학장, 한국문화진흥회 이사, 대한보문중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 포교외에도 문학과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특히 용봉 스님은 1960년 대전 중구 선화동에 대한불교연구원을 건립, 총 1천여회에 걸쳐 매주 불교강좌를 열어 당시로서는 불교의 새모습을 도심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산파역할을 했다.

용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대한불교연구원을 거쳐지 않은 대전·충남 불교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스님은 도심 포교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3월 조식을 재장비한 용봉당대종사 추모기념사업회(회장 송하섭 전 단국대 부총장)는 올해부터 2년 계획으로 <용봉당 대종사 법어 및 법문집> 발간에 들어갔다. 용봉 스님은 생전에 '자료가 없으면 한 마

디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각종 행사, 법회, 강연 등에 나설 때는 꼭 법문 자료를 준비했다.

1991년 열반전까지 약 3000여회에 걸쳐 법문했던 내용중 1500회 분량을 기념사업회가 입수해 3월부터 발간 작업에 들어갔다.

시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이끄는 문인이기도 했던 용봉 스님은 생전에 300여편의 시(詩)를 남기는 등 문학 활동에도 전념했다.

기념사업회원이자 스님의 애제자였던 강태근 배재대 교수(대전문화원장)가 문집 간행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봉 스님의 시와 산문을 가려뽑아 1500페이지 2-3권 분량으로 문학전집을 만들 계획이다.

스님의 발자취를 살피기 위해 내년 5월에는 대전 보문산에 용봉문학사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용봉 스님이 평생 지은 시 중에서 108수를 엄선해 문도회장인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범 스님의 서체로 '용봉유



용봉당 이재복 스님

고시서화전'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1960년 보문중고등학교 건립을 주도했고 40여년간 교장으로 재직했던 용봉 스님의 교육 불사를 기리는 사업도 펼쳐진다.

스님의 제자들은 연내에 대전 보문고 교정에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공덕비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용봉문도회는 4월 6일 대전불교연수원 큰법당에서 용봉당 이재복 대종사 열반 15주기 추모법회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국내 사무감사 마쳐 해외심인당 4월25·26일 실시

진각종 사감원(원장 해명 정사)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중기기관을 비롯한 7개 구구청별 전국

명동성당으로 간 '영산재'

평화방송 초청, 4월19일 10시30분

부처님 오신날(5월5일)을 앞두고 부처님이 성당을 방문한다.

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는 4월 19일 명동성당 10시30분(문화관)에서 '영산재 의식'을 시연한다.

이번 공연은 평화방송의 '최호영 신부와 함께 하는 교회음악콘서트' 프로그램 공개방송에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과 불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명동성당에서 불교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날 콘서트에는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 8명이 참석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에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靈山齋)'를 선보인다.

영산재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깨닫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중장한 불교 의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연 후에는 진행자인 최호영 신부(가톨릭대 음악과 교수)가 기능 보유자인 구해 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불교와 가톨릭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종교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이날 공연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무료다. 녹화된 공연은 평화방송에서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4회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심인당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3월 30일 통리원과 교육원 사무감사 후 가진 감평자리에에서 사감원장 해명 정사는 "이번 감사는 종단의 행정과 회계 등 단순한 감사 기능뿐만 아니라 종책과 교법에 대한 분야까지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교도들의 귀중한 회사를 토대로 종단

이 운영되어 지는 만큼 부처님 정재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사무감사에 이어 미국 LA 불광심인당, 워싱턴 법광심인당 등 해외심인당의 사무감사는 4월 25·26일 양일 간 열리는 춘기승강공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김주일 기자

종조탄신 1200주년 조동종 기념 다례제



조동종은 4월 5일 서울 청량사에서 종조탄생 1200주년 기념 다례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지명 종정스님을 비롯해 부총정 제공 스님, 승정원장 춘담 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본원종, 세계평화기원 방생·수륙 고혼 천도법회



본원종은 3월 31일 충주댐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통일, 국제민간 세계평화기원 방생 및 수륙고혼 천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대환, 종회의장 대운, 영불원장 대환 스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불자들 정성으로 군법당 우뚝

장병들의 신심도량 일승사·교훈사 완공



2006 군포교 함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등 종단과 불자들의 후원으로 군법당이 불사를 마치고 장병들의 신앙공간으로 거듭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군단 일승사주지법사 백승하는 4월 2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과 임종빈 군단장, 전창승 군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군포교의 거점 법당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일승사는 비가 새는 등 보수가 필요해 지난해 9월부터 군예산과 지역 사찰 및 장병 가족 등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증창불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이 단청불사 비용을 전액 보시해 이날

회향법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일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불심과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증창불사를 통해 장병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 일승사가 경기도 지역의 군포교를 이끌어갈 핵심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55사단 신병교육대 호국 도량 교훈사도 4월 8일 낙성법회를 갖고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호국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호국 도량 교훈사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이 증명으로 주지 두백 스님과 안국선원 수불 스님, 박희경, 손연주, 강윤자, 이금열, 정하연 보살 등 사부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 4월2일 새를게 모습을 드러낸 1군단 일승사 전경.

대중의 보시로 1여년 동안의 공사를 걸쳐 이번엔 완공됐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용인불교사암연합회 성호 스님,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 스님, 서울 굴상사 주지 덕조 스님, 55사단장 김태

교 장군, 이종인, 해원 군법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태교 사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래의 주역이 될 신병들이 열심히 배우고 뛰어서 장차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를 추진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넓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랑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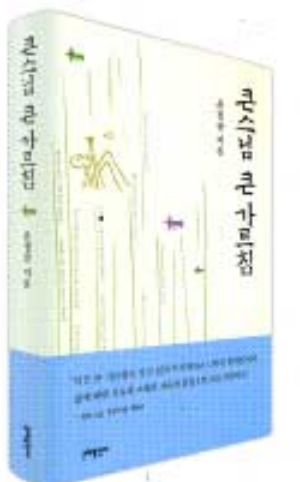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기원하는 의미로 교훈사로 법당을 명명했다"며 "우리 군과 55사단 장병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일깨우는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낙성 법회에서 "신병들이 모인 이곳에서의 법당이던 참으로 소중하고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복과 지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법당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두식 기자

경허 스님에서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큰스님 열아홉 분의 감동적인 일화!

큰스님 큰 가르침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윤청광 지음



이런 큰 가르침이 널리 읽혀 무기력하고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지혜가 새롭게 움트려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의 글을 쓴다.

— 법정 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선방의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가르침!

경허·한암·만공·한영·효봉·고인·청담·춘성·경봉·동산·만암·고봉·구산·성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근대의 고승들의 업적과 인격을 생생한 심화를 통해 한눈에 보여주는 책!

양장 | 296쪽 | 값 10,000원

"법정 스님이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는 책임입니다."

시간이 그토록 늦은 줄도 모르고 감명 깊게 읽으셨다면 '말고 항기를 게 모임' 회원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 (말고 항기) 2006년 2월호

할아버지의 기도



침대맡에 두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

레이철 레옌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뛰어난 의사면서 동시에 영혼을 치유하는 탁월한 영교승이다. 이 책에서 그나가 들려주는 이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진정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 고도현

레이철 나옴이 레옌 지음 | 류해옥 옮김 | 328쪽 | 값 10,000원

E-mail: info@moosye.com TEL: 393-5681 FAX: 393-5685 문예출판사